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정진철

양난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찾게 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를,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을 통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각각 전문적 도움추구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사이에서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모형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인은 집단자존감을 통해 개인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자존감은 개인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내면화되어 전문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자존감보다는 집단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담 실재를 위한 제언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

[†] 교신저자 : 양난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Tel : 055-751-5774, E-mail : behelper@gnu.ac.kr

지난 5월 12일, 하루 동안에 경기도와 강원도의 2곳에서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동아일보, 2010. 5. 13.).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20-30대 젊은이들로 연고지는 다르지만 유서나 남겨진 메모를 볼 때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십 만 명 당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6년 21.5명, 2007년 23.9명, 2008년 24.3명으로 20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전체 연령에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었고 20~30대에서는 1위, 10대에서는 운수사고에 이어 2위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및 청년층의 자살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종결(24%), 가족구성원이나 친구간의 다툼(26%) 등 매일 겪게 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특히 대인관계 갈등이 청소년 자살의 촉진요인이었으며(Annette, Peter & Roger, 1996),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로는 죽고 싶어서(28%), 도피하고 싶어서(13%), 편안해지고 싶어서(18%) 순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Boergers Spirito & Donaldson, 1998).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들로 이들이 적절한 심리적 도움을 구했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전문적인 심리적 도

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정신과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도움에 의지하거나 이러한 도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태도 등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라고 하는데 (Fischer & Turner, 1970) 도움추구태도는 실제 도움추구행동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scher & Turner, 1970;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하지만 실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찾는 것은 아니다(Lopez, Melendez, Sauer, Berger, & Wyssmann, 1998). 상담에 대한 심리적 회피현상은 자살 등의 위기 상황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장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잠재적인 내담자의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의 조기종결 가능성을 낮추며 궁극적으로 자살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 남성보다 여성이(Fischer & Turner, 197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Tessler & Schwartz, 1972),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Leaf, Bruce & Tischler, 1986)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 추구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은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이동하

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찾게 하는 접근요인과 개인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찾지 않게 하는 회피요인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의 접근요인으로 밝혀진 변인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Birkel & Reppucci, 1983; Bosmajian & Mattson, 1980)와 심리적 고통감(Halgin & Weaver, 1987; Lopez et al., 1998)이 있었으며 회피요인으로는 자기개방성과 자기은폐(Kelly & Achter, 1995),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한 유용성 기대(Bayer & Peay, 1997)와 위협기대(Brooks, 1998), 낙인(Crisp, Gelder, Rix, Meltzer, & Rowlands, 2000) 등이 있었다.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함께 살펴본 신연희와 안현의(2005),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이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접근요인보다는 회피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피요인을 중심으로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전문적 도움추구의 회피요인 중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변인 중의 하나가 낙인이다. 낙인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Corrigan, 2004).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서의 낙인은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낙인의 개념을 이용하였다(Halgin, Weaver & Donaldson, 1985). 즉, ‘내가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되는 것이므로, Judge (1997)는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 상담이나 내담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낙인은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Cooper, Corrigan과 Watson(2003)에 의하면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낙인으로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도움을 적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낙인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Corrigan(2004)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 낙인은 타인에 의해서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고 자기낙인은 개인이 스스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자기낙인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인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준호, 서영석, 2009 재인용).

그런데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결과들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각각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직접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두 모형은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태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완전매개모형은 내면화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반면, 직접효과모형은 사회적 인식과 내면화 과정 모두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완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Vogel, Wade와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낙인이 높아지며, 자기낙인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기낙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 변인과 자기은폐, 자기개방 등을 함께 연구한 윤지영(2006)의 연구결과 역시, 최종적으로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지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Corrigan(2004)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동일한 모형을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이민지와 손은정(2007)과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경우에도 직접효과모형이 잘 지지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들은 완전매개모형과 직접효과모형을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정한 각각의 모형만을 검증한 결과이기에 이 세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두 모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과 직접효과모형을 연구모형과 가설모형으로 설정하여 세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자존감이란 개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어 하고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심리적 문제와 높은 관련을 가지므로 낙인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Rüsch, Angermeyer, & Corrigan, 2005). 심리적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낙인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인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졌지만(Markowitz, 2001; Rosenfield, 1997; Wahl, 1999; Wright, Gronfein, & Owens, 2000), 다른 연구에서는 낙인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으며(Hayward & Bright, 1997),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였다(Llewellyn, 2001). 추후연구에서 타인에 의한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 의해 내면화 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Rüsch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에 영향을 주고, 내면화된 자기낙인은 자존감을 낮추며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자존감은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데 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어 스스로에 대한 낙인이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며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향 역시 낮아진다고 한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모형을 논의한 Greene-Shorridge, Britt와 Castro (2007)는 정신병리가 있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정신병리를 가진 개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신병리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자기낙인으로 내면화되면 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존감에는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

같은 개인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과 같은 집단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여 Crocker와 Luhtanen(1990)은 자존감을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개인자존감은 자신의 가치, 호감 등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집단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 중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따라서 개인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집단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집단에 속한 것이 자신의 정체감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집단자존감은 개인자존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가지는데,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김혜숙(1994)의 연구에서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상관은 .44-.52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상관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김혜숙(1994)은 집단주의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자존감 못지않게 집단자존감이 개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체면과 상호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특색인 우리나라(최상진, 2000)에서는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oo(1997)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낙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개인도 사회적 낙인

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 이루어진 Yeh(2002)의 연구에서도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동양인들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외집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Gim, Atkinson, & Whiteley, 1990). 즉,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외집단원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집단의 경계와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Yeh,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낙인은 집단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단자존감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결국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각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두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이 개인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모형과 개인자존감이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하여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와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여 탐색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모형 1과 2는 Vogel, Wade와 Hackler(2007)와 윤지영(2006)에 근거하여 사회적 낙인과 도움추구태도 사이를 자기낙인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으로 모형 3과 4는

Corrigan(2004), 이민지와 손은정(2007), 박준호와 서영석(2009)에 근거하여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도움추구태도에 직접효과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집단자존감의 차별적인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모형 1과 3은 낙인이 집단자존감을 통해 개인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모형2와 4는 낙인이 개인자존감을 통해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Yoo, 1997; Yeh 2002).

구체적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완전매개할 것이다(모형 1, 모형 2).

1-2.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각각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모형 3, 모형 4).

둘째,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은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낙인은 집단자존감을 통해 개인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모형 1, 모형 3).

2-2. 낙인은 개인자존감을 통해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모형 2, 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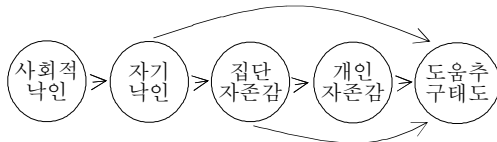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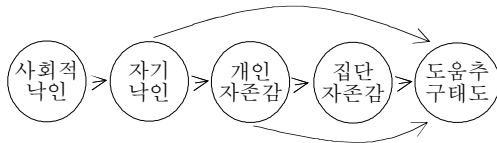


그림 2.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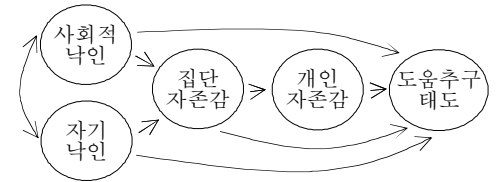


그림 3. 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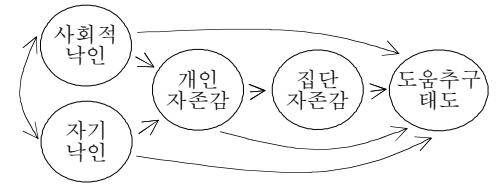


그림 4. 모형 4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의 4년제 대학교 2개 교에서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27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71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남자가 120명(44.3%), 여자가 150명(55.4%)이었고, 무응답이 1명 있었다. 참가자의 연령은 평균 20.8세($SD=2.34$)였고, 참가자의 전공은 인문 189명(69.7%), 자연 49명(18.1%), 기타 30명(11.1%), 무응답 3명(1.1%)이었다.

설문지는 강의시간에 실시되었고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를 먼저 구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공지하였고,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도 구

개인자존감

개인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2001)에서 출판한 ‘심리 척도 핸드북Ⅱ’에 실려 있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고 총 10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4점 척도로,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5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965)가 보고한 대학생 집단에서 *Cronbach's alpha*는 .85에서 .88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집단자존감

개인이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느끼는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Luhtanen(1990)이 개발한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혜숙(1994)이 타당화한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구성원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멤버십을 측정하는 문항 4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사적 집단자존감을 측정하는 4개 문항,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본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한 공적 집단자

존감을 측정하는 3개 문항, 그리고 집단의 성원이 되는 것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체적 집단 자존감을 측정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혜숙(1994)이 보고한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멤버십이 .78, 사적 집단자존감이 .75, 공적 집단자존감이 .68, 정체적 집단자존감이 .66이었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멤버십 .79, 사적 집단자존감 .80, 공적 집단자존감 .65, 정체적 집단자존감 .50이었고, 전체 척도는 .85로 나타났다.

자기낙인

자기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Vogel, Wade와 Haake(2006)가 개발한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 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역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5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자기낙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Vogel, Wade와 Haake(2006)가 보고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81이었다.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은 Komiya, Good과 Sherrod(2000)가 개발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역변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의미는 문항총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omiya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하고, Yoo(1997)가 번역한 것을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수정하여 사용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척도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4개 요인으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필요성,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낙인에 대한 내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찾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함께 측정하였던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문항이 낙인 내인성의 문항과 개념적으로 중복되어 낙인 내인성 요인을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을 함께 측정한 본 연구에서도 낙인 내인성을 측정하는 5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가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여

전문가에 대한 신뢰 6개 문항, 도움 필요성 인식 5개 문항, 자기 문제의 개방성 5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Fischer와 Turner(1970)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71, 도움추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59,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이 .36이었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분석방법

각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척도의 신뢰도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를,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검증을 하기 전에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왜도와 첨도, 이상치 등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낙인, 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를 설명하는 최적모형을 찾기 위해 탐색적으로 4개의 모형을 구성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이 경로모형에 비해 경로 추정치가 커지며, 오류변량이 줄어든다는 Coffman과 MacCallum(2005)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네 가지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방식을 따라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각 척도별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 측정변수로 하였고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차원 수준 자료의 경우 문항꾸러미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모형 적합지수를 얻을 수 있다는

Bandalos(200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원래 하위 요인이 4개인 집단자존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각각 3개의 측정변수로 묶었다. 각 문항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각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동등하도록 문항을 배분하였다. 모형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GFI, IFI,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 & Cudeck, 1993)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GFI, IFI,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혹은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1; 배병렬, 2007).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내재된 모델이 아닌 경우에 추천되는 ECVI, AIC, BIC 등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07;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ECVI는 2개의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임을 의미하며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고 간명한 모형임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 김진호, 홍세희와 추병대(2007)의 권유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원자료(N=271)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되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기초분석으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간 상관을 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사이,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 사이, 집단자존감 및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은 나머지 세 변수와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냈다.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01수준에서 유의한

표 1.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271)

변인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집단 자존감	개인 자존감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낙인	1	.47**	-.19**	-.18**	-.32**	2.15	0.55
자기낙인		1	-.26**	-.27**	-.57**	2.35	0.54
집단자존감			1	.54**	.31**	5.18	0.79
개인자존감				1	.16**	3.04	0.51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1	2.85	0.35

** p<.01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문항 꾸러미(item parcels)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94, N=271)=216.449, p<.001, RMSEA=.069$ (90% 신뢰구간 .056-.080), TLI=.905, CFI =.925 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문항 꾸러미를 통해 만들어진 관측변수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관측변수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56**	1														
3	.65**	.71**	1													
4	.46**	.57**	.59**	1												
5	.32**	.42**	.44**	.62**	1											
6	.27**	.36**	.35**	.44**	.56**	1										
7	.04	.18**	.18**	.38**	.38**	.24**	1									
8	-.16**	-.14*	-.15*	-.17**	-.15*	-.15*	.01	1								
9	-.27**	-.31**	-.35**	-.34**	-.31**	-.18**	-.12	.62**	1							
10	-.16**	-.14*	-.16**	-.17**	-.19**	-.15*	-.06	.53**	.57**	1						
11	-.07	-.14*	-.21**	-.10	-.17**	-.11	-.02	.37**	.40**	.53**	1					
12	-.07	-.14*	-.25**	-.19**	-.25**	-.15*	.01	.20**	.28**	.34**	.50**	1				
13	.00	-.13*	-.10	-.07	-.17*	-.10	-.02	.09	.22**	.26**	.46**	.55**	1			
14	.07	.12	.15*	.23**	.21**	.15*	.11	-.33**	-.46**	-.42**	-.30**	-.22**	-.12*	1		
15	.04	.05	.12	.15*	.15*	.13*	.18**	-.30**	-.42**	-.44**	-.31**	-.23**	-.14*	.56**	1	
16	.19**	.08	.14*	.25**	.25**	.22**	.19**	-.31**	-.29**	-.37**	-.20**	-.17**	-.07	.62**	.33**	1
M	2.70	3.07	3.27	5.16	5.25	5.58	4.69	2.37	2.56	2.18	1.93	2.31	2.27	3.00	2.69	2.84
SD	0.69	0.57	0.51	1.04	1.04	0.94	1.04	0.59	0.64	0.67	0.66	0.63	0.75	0.44	0.46	0.44

주. 1, 2, 3은 자존감을 3개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4, 5, 6, 7은 집단자존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4. 멤버십, 5. 사적 집단자존감, 6. 공적 집단자존감, 7. 정체적 집단자존감이다. 8, 9, 10은 자기낙인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고 11, 12, 13은 사회적 낙인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다. 14, 15, 16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14. 전문가 신뢰, 15. 전문적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16. 문제에 대한 개방성이다.

N=271. * $p<.05$, ** $p<.01$

다. 각 잠재변수별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

가 .50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가지며,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변수별로 왜도는 -.460에서 .108 사이였고, 첨도는 -.385에서 .213 사이로 모든 측정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nch & West, 1997).

표 3.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임계치
사회적 낙인				
사회 1	.74***	1.00		
사회 2	.73***	.95	.10	9.15
사회 3	.65***	1.00	.12	8.65
자기낙인				
자기 1	.70***	1.00		
자기 2	.83***	1.28	.12	11.20
자기 3	.74***	1.20	.12	10.44
집단자존감				
집단 1	.83***	1.00		
집단 2	.77***	.92	.08	12.30
집단 3	.60***	.64	.07	9.50
집단 4	.43***	.52	.08	6.64
개인자존감				
개인 1	.71***	1.00		
개인 2	.81***	.95	.08	12.11
개인 3	.89***	.92	.07	12.76
도움추구태도				
태도 1	.76***	1.00		
태도 2	.72***	.98	.11	9.40
태도 3	.51***	.66	.09	7.12

*** $p < .001$

모형비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모형 모두 GFI, IFI, TLI, CFI가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는 .08이하로 보통 적합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소하지만 모형 1이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IFI, TLI, CFI, RMSEA가 더 좋았고 모형 3과 4는 GFI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내재되지 않은 모형 간 비교에 보다 적합한 ECVI, AIC, BIC를 검토하였는데 모형 1이 ECVI, AIC, BIC 모든 지수에서 다른 모형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모형비교 결과, 모형 1이 다른 모형에 비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설 1-1과 2-1을 지지하는 결과로 자기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도움추구태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낙인은 집단자존감을 통해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

표 4. 모형간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GFI	IFI	TLI	CFI	RMSEA	ECVI	AIC	BIC
모형 1	219.766***	98	.911	.927	.909	.926	.068	1.095	295.766	431.796
모형 2	221.325***	98	.911	.926	.908	.925	.068	1.101	297.325	433.306
모형 3	219.335***	96	.912	.926	.906	.925	.069	1.109	299.335	442.565
모형 4	220.764***	96	.912	.925	.905	.924	.069	1.114	300.764	443.948

*** $p < .001$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1에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에 대한 경로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 계수가 유의미하였는데 먼저,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eta=.59, p < .001$),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1, p < .001$). 이는 사회적 낙인이 높아질수록 자기낙인이 높아지고, 자기낙인이 높아지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자기낙인은 집단자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eta=-.40, p < .001$), 집단자존감은 개인자존감과($\beta=.73, p < .0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beta=.27, p < .05$)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낙인이 높을수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집단자존감이 낮아지면 개인자존감과 전문적으로 도움을 추구하려는 태도 역시 낮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자존감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beta=-.26, p < .05$) 개인자존감이 낮아지면 심리적 도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인자존감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26, p < .05$)는 두 변수 간 상

관계수($r=.16, p < .01$)와 반대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매개모형 검증시 상관이 없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때 이는 모형에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2). 특히,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부호인 경우에 억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Tzelgov & Henik, 1991; 김민선, 서영석, 200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자존감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이지만, 매개변수인 개인자존감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적이므로 집단자존감의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간접효과는 부적이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집단자존감이 종속변수인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가 투입 되었을 때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부분 또는 전부 설명하게 됨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이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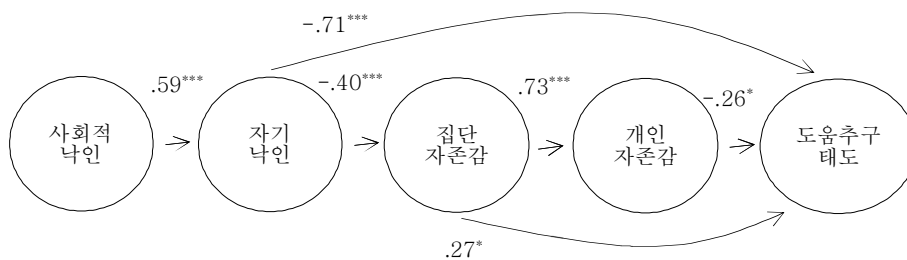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N = 271)

* $p < .05$. *** $p < .001$

표 5.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N = 271)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신뢰구간)	총 효과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59**		.59**
사회적 낙인 → 집단자존감		-.24** (-.35 ~ -.14)	-.24**
사회적 낙인 → 개인자존감		-.17** (-.26 ~ -.09)	-.17**
사회적 낙인 → 도움추구태도		-.44** (-.57 ~ -.27)	-.44**
자기낙인 → 집단자존감	-.40**		-.40**
자기낙인 → 개인자존감		-.30** (-.43 ~ -.17)	-.30**
자기낙인 → 도움추구태도	-.71**	-.03 (-.11 ~ .04)	-.74**
집단자존감 → 개인자존감	.73**		.73**
집단자존감 → 도움추구태도	.27*	-.19* (-.44 ~ -.01)	.08
개인자존감 → 도움추구태도	-.26*		-.26*

* $p < .05$. ** $p < .01$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김민선, 서영석 2009 재인용). 따라서 개인자존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기 전과 후에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여 억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집단자존감과 도움추구 태도는 개인자존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할 때 상관이 더 증가한다. 따라서 집단자존감과 도움추구 태도 사이에 개인자존감의 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효과 검증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매개모형에서 변수들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Shrout와 Bloger(2002)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먼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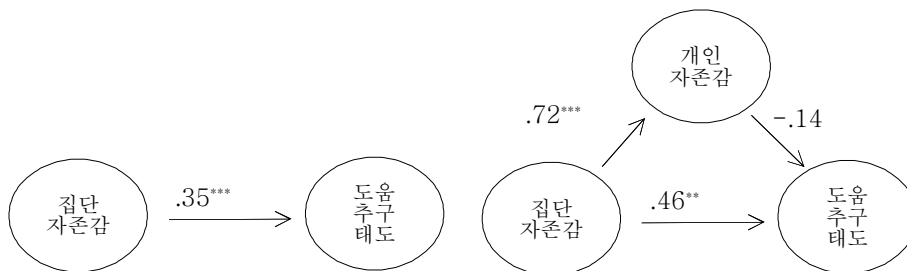


그림 6. 개인자존감의 억제효과 검증

** $p < .01$. *** $p < .001$

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자기낙인,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의 간접효과($\beta = -.44, p < .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의 간접효과($\beta = -.19, p < .05$)와 집단자존감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27, p < .05$)는 유의미하였으나 자기낙인과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간접효과($\beta = -.03, p > .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과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효과가 표집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 개인자존감과 집단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모형을 구성하여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완전매개하는지,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선행 연구에서 일치되지 않았던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는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낙인은 집단자존감을 통해 개인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집단자존감은 개인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일치되지 않았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Vogel, Wade와 Hackler(2007)와 윤지영(2006) 등의 연구결과에서 근거한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을 매개하여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과 Corrigan(2004), 박준호와 서영석(2009)과 이민지와 손은정(2007) 등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도움추구태도에 각각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모형을 직접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타인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 의해서 자기개념으로 내면화될 때에만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낙인이 단순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만으로는 개인이 전문적인 심리적 서비스를 찾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적인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실무자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잠재적인 내담자들이 보다 거부감 없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낙인을 줄이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을 자기낙인으로 내면화하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적 낙인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낙인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Wahl, 1999)와 교육(Tanaka, Ogawa, Inadomi, Kikichi & Ohta, 2003),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Angermeyer, Matschinger & Corrigan, 2004)이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이 낙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Rüsch et al., 2005). 하지만 낙인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심리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자기낙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다.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것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찾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에 더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기낙인으로 발달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의 원인에 대한 귀인 경향을 바꾸도록 하는 귀인재훈련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귀인이란 자신의 행동이나 특정한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를 말하는데, 학습부진 학생과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학생에게 귀인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순, 2003)과 자존감(김성옥, 2001; 박숙경, 2008)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귀인재훈련을 통해 자신이 실패한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닌 것으로 지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찾는 것이 자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지각하게 된다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지 않도록 자기사고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사고를 수정하기 위해 귀인재훈련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검토하는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의 관계를 알

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본 경우는 많았지만(김혜숙, 1994; 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최명식, 1996; Crocker & Luhtanen, 1990; Hayward & Bright, 1997; Llewellyn, 2001; Markowitz, 2001; Vogel, Wade & Hackler, 2007; Yeh, 2002),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낙인,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은 모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낙인과 자존감, 낙인과 도움추구태도는 부적 상관이, 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개인자존감보다는 집단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성이 더 컸다.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김혜숙, 1994; 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최명식, 1996; Crocker & Luhtanen, 1990; Hayward & Bright, 1997; Llewellyn, 2001; Markowitz, 2001; Vogel, Wade & Hackler, 2007; Yeh, 2002)과 동일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개인이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낙인과 같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같은 전반적인 자기개념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잠재적인 내담자나 현재 전문적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모두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겪게 될 자존감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존감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높은 변수이므로(Beck & Young, 1979; Coopersmith, 1967) 이들의 자존감을 살피는 것이 심리치료의 예후와 더불어 이후에 심리적 도움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비교한 결과, 개인자존감이 집단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모형이 집단자존감이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인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자존감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과 그로부터 얻는 평가가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김혜숙, 1994; Crocker & Luhtanen,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과 상호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 잠재적 내담자들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존감, 특히 집단자존감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표본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살펴본 부트스트랩 결과는 이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석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세 변인이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경로계수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Greene-Shorridge, Britt & Castro, 2007; Yeh, 2002). 본 연구모형에서는 집단자존감이 높아질수록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개인자존

감이 낮아질수록 도움추구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대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Yeh(2002)의 연구에서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Greene-Shorridge 등(2007)이 심리적 장애에 대한 낙인을 연구하면서 제안한 모형에서도 낙인은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에 대한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억제효과와 부스트랩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자존감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이에는 억제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실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상담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개개인이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도움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개인의 인지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초기에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상담 종결을 결정하는 조기탈락 비율을 경감시키기 위해 첫 면접 또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정서, 생각을 잘 탐색하고 이를 다룸으로써 낙인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은 잠재적 내담자들이 실제로 상담을 찾게 하는 통로이므로 자존감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개인자존감뿐만 아니라 집단 자존감이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내집단의 평가와 가치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내집단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입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이 높은 자존감 변인을 고양함으로써 심리치료의 예후를 좋게 함과 동시에, 심리적 도움을 한 번 찾은 내담자가 이후에 다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다시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찾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추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움추구 태도 외에 도움추구 의도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행동이론(Ajzen, Timko & White, 1982)에 근거하여 태도는 의도를 매개로 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의도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박준호, 서영석,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움추구 의도 변수를 함께 연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도움추구 의도를 함께 투입하여 실제 행동을 더 정확히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Yeh (2002)연구에서 집단자존감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개인자존감을 함께 투입한 경우에

는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에서 집단자존감과 도움추구태도의 간접효과와 집단자존감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자기낙인과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과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효과가 표집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자존감 변수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서울 소재의 1개 대학교와 경남 소재의 1개 대학교에서 모집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이외의 연령이나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연령대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 척도핸드북II*. 서울: 학지사.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욱 (2001). 스포츠 활동에서 학습된 무력감 극복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귀인 재훈련.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41-15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적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사회 및 성격* :

-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53-64.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 연구*, 36(4), 897-923.
- 김혜숙 (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1), 103-116.
- 동아일보 (2010, 5, 13).
- 박숙경 (2008). 귀인훈련과 사회적 기술향상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윤지영 (2006). 낙인, 자기은폐, 자기개방이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 순 (2003). 귀인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식 (1996). 남성 성역할갈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9). 2008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 Ajzen, I., Timko, C., & White, J. B. (1982). Self-monitoring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426-435.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germeyer, M., Matschinger, H., & Corrigan, P. (2004).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and social distance from people with schizophrenia and major depression: Testing a model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 *Schizophrenia Research*, 69, 175-182.
- Annette, L. B., Peter, R. J., & Roger. T. M. (1996).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th Aged 13 through 24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174-1182.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ayer, J. K., & Peay, M. Y. (1997). Predicting intentions to seek help from professional mental health servic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 504-513.
- Beck, A. T., & Young, J. (1979). Handbook of studies on depression. *Journal of Nerves and Mental Disease*, 167, 719.
- Boergers, J., Spirito, A., & Donaldson, D. (1998). Reason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1287-1293.
- Bosmajian, C. P., & Mattson, R. E. (1980). A controlled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counseling center 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10-519.
- Birkel, R. C., & Reppucci, N. D. (1983). Social networks, information seeking, and the utilization of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85-205.
- Brooks, G. R. (1998). *A neuropsychotherapy for traditional 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ffman, D. L., & MacCallum, R. C. (2005). Using Parcels to Convert Path Analysis Models Into Latent Variabl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0, 235-259.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oper A. E., Corrigan, P., & Watson, A. C. (2003). Mental illness stigma and care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10-832.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pp.4-5, 96-117). New York: Academic Press.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 614-625.
- Crisp, A. H., Gelder, M. G., Rix, S., Meltzer, H. I., & Rowlands, O. J. (2000). Stigmatiz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7, 4-7.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5-66.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639-485.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1,Part1),79-90.
- Gim, R. H., Atkinson, D. R., & Whiteley, S (1990). Asian-american acculturation, severity of concerns, and willingness to see a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81-285.
- Greene-Shortridge, T. M., Britt, T. W., & Castro, C. A. (2007). The stigma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the military. *Military Medicine*, 172(2), 157-161.

- Halgin, R. P., & Weaver, D. D. (1987). Relation of depression and help-seeking history to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77-185.
- Halgin, R. P., Weaver, D. D., & Donaldson, P. E. (1985).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btaining psychotherap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8*, 75-86.
- Hayward, P., & Bright, J. A (1997). Stigma and mental illness: A review and critique. *Journal of Mental Health, 6*(4),345-354.
- Judge, A. B. (1997). *Psychotherapy and stigm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tigma as it is attached to seeking psych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USA.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eaf, P. J., Bruce, M. L., & Tischler, G. L. (1986). The differential effect of attitudes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Psychiatry, 21*, 187-192.
- Llewellyn, A. (2001). Self-esteem in children with psysical disabilities. *Dev Med Child Neurol, 43*, 70-71.
- Lopez, F. G., Melendez, M. C., Sauer, E. 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79-83.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 173-181.
- Markowitz, F. E (2001). Modeling processes in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Relationships between symptoms, life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64-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field, S (1997). Labeling mental illness: The effects of received services and perceived stigma on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660-672.
- Rüsch, N., Angermeyer, M. C., & Corrigan, P. W (2005). Mental illness stigma: Concepts, consequences, and initiatives to reduce stigma. *European Psychiatry, 20*,529-53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Tanaka G, Ogawa T, Inadomi H, Kikichi Y, Ohta Y. (2003). Effect of an educational program on public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Psychiatry Clin Neurosci. 57*, 595-602.
- Tessler, R. C., & Schwartz, S. H (1972). Help seek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18-326.
- Tzelgov, J., & Henik, A. (1991). Suppression situations in psychological research: Definition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 524-536.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25-337.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40-50.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Wahl, O. F. (1999). Mental health consumers' experience of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5, 467-478.
- Wright, E. R., Gronfein, W. P., & Owens, T. J. (2000).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rejection, and the self-esteem of former mental pati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68-90.
- Yeh, C. J. (2002). Taiwanese students' gender, age,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attitud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 19-29.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원 고 접 수 일 : 2010. 06.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23
게 재 결 정 일 : 2010. 08. 13

The Relations among Stigma,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Jin Chul Choung

Nan Mee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stigma,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in which the process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might be identified and understood. In the current study, the two competitive hypotheses were simultaneously examined: 1) Self-stigma was hypothesized to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public-stigma and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2) and both public-stigma and self-stigma were assumed to directly influence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Results indicated that self-stigma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public-stigma and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Also, stigma indirectly influenced individual self-esteem through collective self-estee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stigma internalized to self-stigma which influence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and collective self-esteem has larger impact on professional help seeking than individual self-esteem.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public-stigma, self-stigma, professional help seeking, collective self-esteem, self-esteem*